

노동당과 변혁당의 연대 논의는 진전이 있는 듯.

○ ○

노동당과 변혁당의 두 대표가 발표한 입장문을 보면, 연대 논의가 총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이게 잘 되어서 현장과 정당 창당이 꼭 이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민주노총 현장과 연대 논의를 살펴보면, 노동당과 변혁당은 찬성하지만, 노해투와 노동전선은 아직 별 반응이 없는 것 같더라.

노해투는 총선에 대해 조직의 입장이 없는 것 같고, 노동전선은 총선에 대해 확실한 입장 대신 애매한 말들을 하고 있으니.

노동당-사회변혁노동자당 양당 대표 공동 입장문

사회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두 정당인 노동당과 사회변혁노동자당 양당 대표는 전개되고 있는 비상한 정세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총선용 비례위장정당 경쟁에 몰두하는 여야 기성정당, 그리고 이에 편승해 오직 의석을 얻는데 급급하여 반노동 친자본 정당과의 야합마저 불사하는 일부 소수정당들의 행태를 엄중 비판한다. 아울러 이러한 잘못된 정치행태를 척결하고 노선과 정책을 중심으로 하는 올바른 정치구조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특히 그 피해가 불안정 노동계급과 취약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을 심각히 우려한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노동-보건-안전-복지 전반에서 나타나는 자본주의의 폐해와 모순을 타파하기 위해 사회주의 대안의 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사회주의 의제 전면화를 위해 함께 나설 것이다.

우리는 지속되고 있는 경제위기와 노동자-민중 삶의 파탄이 자본주의에서 기인한 비극이라는 인식을 함께 하며, 이번 21대 총선이 <재벌과 기득권 중심의 자본주의 방식>과 <노동자-민중 중심의 사회주의 대안>이 대결하는 장이 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한다.

이번 총선에서 양당은 사회주의 의제와 대안을 중심으로 연대할 것이며, 총선 이후에도 한국 사회주의 정치의 확대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공동논의와 공동실천을 해 나갈 것이다.

2020년 3월 25일

사회변혁노동자당 대표 김태연
노동당 대표 현린